

## 헌금케에서 사라진 동전들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이십 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개역, 출애굽기 30:11~16]

**조** 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예수님께서 내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내 몸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고 하십니다.

이 찬송가를 헌금 시간에 불러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 때에 얼마를 헌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다 주었다 너 나 위해 무엇하느냐' 하시는데 얼마를 하셨어요? 천원, 이천원 했으면 강심장이죠? 아니, 아무 생각이 없이 부르는 것 따로, 헌금 따로 하셨어요? 헌금시간에 그 찬송을 부르게 하는 분이 참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헌금 찬송이 아니예요. 아니, 예수님 몸값을 도대체 얼마로 하라고 헌금 시간에 그 찬송을 부르게 합니까? 그 찬송은 우리에게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너 날 위해 무엇하느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 위해 이렇게 주었는데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내 모든 것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헌금시간에 아무 생각이 없이 부르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도대체 얼마를 헌금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헌금 시간에 절대 이 찬송을 부르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라고 몸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딱서니 없는 전도사가 겁도 없이 할말 안 할말 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본문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헤아릴 때에 '너희가 만약에 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속전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사람을 다 드리면 곤란하니까 대신에 속전을 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얼마를 내라고 요구하셨지요? 반 세겔인데 반드시 내야 합니다.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12절)'는 말씀은 만약에 내지 않으면 온역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온역은 쉽게 말하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다 그러니까 내라. 이것은 반드시 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때에 보면 성전세로 반 세겔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십세 넘은 성년은 1년에 반드시 성전세를 반 세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중요한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 세겔입니다. 부자가 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좀 적게 내야 타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 세겔,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내지도 말고 똑같이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예물을 요구하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주 명확하게 똑같이 반 세겔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값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똑같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공부 좀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으면 하나님께 더 값나가고 공부 못하고 배운 것 없고 힘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값이 좀 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속전은 동일하게 반 세겔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사람 앞에서는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이만하면 되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없고 능력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 정말 잘났고 위대한 인물 앞에서 '나나 내나(당신이나 나나)' 값이 똑같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삼시다.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전을 내야 한다는 것과 그 속전의 값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현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절에 다니시던 어떤 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지입니다. 그런데 나오던 첫날부터 현금을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도 감사하기도 하고 참 신기하다 싶어서 물어 봤대요. 어떻게 현금생활을 그렇게 잘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분 대답이 "절에 다닐 때도 시주를 했는데요." 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시주를 했다는 겁니다. 잘 하는 겁니까? 그저 많이만 하면 잘 하는 겁니까? 문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절에 가서 하던 일을 교회에 오면 그 버릇 그대로 하는 거죠. 왜 현금을 하며 그 현금에 대한 의미를 전혀 생각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의 현금이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현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현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속전으로 내라고 한, 반 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반 세겔이 계산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한 세겔이 보통 노동자의 4일 품삯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세겔이면 이틀 일당이 되는 셈이죠. 은으로 따져 보니까 한돈 반 정도가 됩니다. 은 한돈 반이 얼마 정도 가격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자의 이틀 임금이라고 하면 10만원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구요. 대강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추산을 해 본 것인데 한 2-3만원 정도의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돈 하나면 두 사람의 목숨 값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했을 때에 바닷가에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보면 고기 입에서 한 세겔짜리 은전이 하나 나올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성전세를 내라고 했을 때에 그것입니다. 현재 돈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에 2만원 정도거나 조금 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2만원입니다. 52주로 나누면 한 주에 약 400원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셈이네요. 우리 현금케에 동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400원, 500원 현금하시는 분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현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의 속전을 반드시 내라고 하시면서 많은 것을 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표를 내라는 것입니다. 기념입니다. 표를 내라고 하시면서 무리하게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균일하게, 성의 표시만 하는 정도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금액수에 욕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어릴 때 왜 현금을 하느냐고 물었대요. 어린 리빙스톤이 "내가 현금케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현금을 하지요" 했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못 들어가니까 내 대신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현금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결국 자기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드린 액수는 비록 적을지라도 이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십일조에 대해서도 가급적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무리하게 현금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의 조카 녀석이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 위로도 할 겸 격려 차원에서 대학에 합격도 되기 전에 등록금의 일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합격했다는 소식이 안 들려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되돌려 보내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십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소득이 아니고 애 등록금에 보태라고 보낸 것인데 그걸 왜 십일조를 해요? 십일조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릴 때에 들은 칭찬 중에는 어떤 학생이 등록금을 받아 가지고 가다가 십일조를 떼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 등록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걸 칭찬하는 얘기를 제가 어릴 때에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십일조를 해야 됩니까? 십일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십일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개가구 공장을 하면서 자개농을 하나 팔면 정확한 값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5백만원에 팔린다고 칩시다. 그런데 5백만원짜리 농을 팔면 5십만원을 떼어서 십일조를 했답니다. 제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모릅니다. 5백만원짜리 자개농을 하나 팔려면 대충 들은 얘기로 처음에 백골을 사온답니다. 백골이라고 하면 아무 무늬도 없는 농의 재료인 셈이지요. 아무 장식이 없는 뼈대만 짜놓은 농을 사 온대요. 그것을 사 오면 그 공장에서는 거기에 자개만 입히고 마무리해서 파는 거죠. 그러면 농 하나를 팔면 내게 남는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해야 합니다.

백골 값을 빼고, 자개 값도 다 빼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월급도 다 계산하고 뿐만 아니라 공장 유지비를 다 계산을 해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가령 5백만원에 팔았다면 원가 계산을 해보면 45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자기 손에 남는 것은 50만원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팔 때 마다 50만원씩 현금을 하다보면 결국은 공장 문 닫습니다. 자기는 안 먹고 사나요? 열심히 해서 많이 벌었고 현금도 많이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원금을 다 까먹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시던 십일조를 하 실려면 원가계산에 철저해야 됩니다.

집 수선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분은 십일조 하기가 참 어렵대요. 집 한채 뜯어 고치거나 방 한칸을 수리하는데 자재비하며 이것 저것 다 계산해 보지 않으면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십일조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계산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튼튼해집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계산을 해 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번에 얼마를 벌었다고 생각하면서 잘 쓰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만 잔뜩 남고 원금은 어디 가고 없더랍니다. 십일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산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반면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참 쉽죠? 월급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은 총액에서 하면 됩니까? 받은 현금을 보고 합니까? 월급 외에 부정기적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하지요? 월급 총액 중에는 전혀 소득이 아닌 것도 들어 있습니다. 연말에 세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복잡한 절차를 한번 따져 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십일조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걸 뭘 계산을 하고 그러냐?” 가급적 많이 하면 좋은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많이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 분도 십일조를 어느 금액으로 할 것이냐? 끝에 조금 남는 것은 떼서 올릴 것이냐 잘라버릴 것이냐? 왜 십일조 봉투에 동전은 안 나와요? 잘라 냅니까 아니면 올려붙입니까?

올려 붙입니다.

무조건 많이 드려야 하나까요? 다른 때는 보통 잘라 버리거나 사사오입 하는데요? 다른 경우에는 자르지만 현금할 때만 자르지 않고 절상을 하고요? 왜요? 야단치실까 싫어서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집 팔고 십일조하는 분을 봤어요. 집을 팔면 그것이 소득입니까? 감사 현금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돼요. 그러나 집을 팔고 십일조를 하겠다? 이사 자주 다니는 사람은 집 한 채 날아가기 일도 아닙니다. 열심히 십일조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십일조만은 소득이 얼마인지를 분명히 계산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약 5천만원짜리 집을 샀는데 한 20년 살았는데 1억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십일조로 해야 되나요? 계산이 어렵습니다. 살 때에 5천만원, 팔 때에 1억이니까 차액 5천만원에 대해서 십일조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판 값 1억에 대해서 십일조를 합니까? 이것 저것 따질 필요없이 그냥 집을 판 값에서 십일조를 합니까?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해야 하고, 많이 드리는 것이 잘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현금, 즉 돈이 아닙니다. 무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계산을 하라고 하느냐?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좀 적게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복을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만큼 복을 주셨느냐를 따져 보고 분명한 사실을 알고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계산을 실컷 해 보니까 손해가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감사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비록 손해를 보았지만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열심히 십일조를 떼는 것과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입니다. 계산을 분명하게 해서 세금 계산을 하듯이 좀 깎아 내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은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한다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헌금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헌금입니다. 남부끄러워서 헌금하는 흉내를 내는 수가 참 많죠. 저 자신도 그런 느낌을 종종 가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헌금 당번 할 때의 일인데 그 날 따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른 교회들보다 한 주일 늦게 드렸어요. 마침 설교하러 오신 분이 어느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사모님이 제일 앞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날 헌금 주머니를 두 번 들었습니다. 처음 한번은 괜찮았어요. 두 번째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겠습니까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또 나갔죠. 헌금주머니를 비우고 돌아서는데 사모님이 당황해서 여기저기를 뒤지고 계셨는데 기다려야 할지 지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모님은 지난 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추수감사절 헌금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왔더니 느닷없이 추수감사 헌금을 또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되잖아요. 분명히 안 하면 됩니다. 준비도 안 해온 헌금을 왜 할려고 부랴부랴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왜 뒤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부인도 헌금주머니를 보고 이런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주머니 돌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반대했는데도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럴 걱정이 전혀 없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헌금을 하나님만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알게 모르게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제발 하나님만 봅시다. 많든지 적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공부 모임에서 장난삼아 한번 물어봤어요. 왜 헌금케에 동전이 없을까? 명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리가 나니까요. 동전을 넣어서 소리가 나면 안되나요? 좀 쟁피하니까요? 그러면 밑바닥에 소리가 안 나도록 무엇을 하나 깔아야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헌금 준비를 잘 해서 헌금을 한다면 헌금케에서 동전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왜 나와야 하는지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죠. 괜히 우리 재정부 집사님들께 야단을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동전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면 그것을 처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울런지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집사가 돼서 어떻게 헌금케에 동전을 넣겠나? 천원짜리 넣는 것도 부끄러운데 백원짜리를 넣는다고 있을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헌금을 할 때에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름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자랑을 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을 때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해답이 간단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헌금이 될 때에는 무명으로 하고 좀 감추고 싶을 때, 헌금을 그것밖에 안 하나 부끄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또 거꾸로 합니다.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을 드릴 때에 준비를 좀 잘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별 준비없이 헌금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동전이 사라진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딸그락거리는 그 소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동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액수를 정해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아니면 그 날 기분 따라서 많이 하시기도 하고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지갑을 열어보고 형편을 봐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고정적으로 한다고 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령 올해에 천원을 헌금하시던 분이 내년에는 얼마를 합니까? 이천원 합니까 천원 합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는가 보네요. 지금부터 합시다. 올해 천원을 하시던 분이 내년엔 천원을 합니까 이천원을 합니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네! 내려가지 않으면 그러면 여전히 천원을 하네요. 그러면 올해 천원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천원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천원을 하나요 이천원을 하나요?

형편 따라요.

물론 형편 따라 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천원씩 헌금을 몇 년간 계속하다가 그 다음은 이천원으로 가지요? 헌금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합시다. 가령 올해 우리 집안 형편을 감안해서 천원만 하기로 한다면 천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해가 지났습니다. 내년에는 그대로 천원을 하면 됩니까? 아무래도 생각을 좀 하자는 거예요. 우리 봉급이 전체적으로 약 10%가 올랐고 물가도 좀 올랐다. 교회의 재정도 조금 늘었다. 그러면 내가 맡은 부분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하는 게 맞겠더라는 생각이 들면 하던 헌금에서 얼마를 조금 보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얼마요? 10% 그러면 1100원이 되고 조금 더 마음을 써서 20%를 한다면 1200원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금을 한다면 동전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냥 하니까 올해는 무조건 천원이다 해서 계속하고 내년에 이천원으로 올리려니 너무 인플레이가 심하다 그러면 올해도 천원을 그대로 하고 내년에는 천원씩 2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천원으로... 이것은 헌금하는 사람의 편익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꼭 동전으로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헌금에 천원짜리가 들어가?" 하고 고함을 질렀다고 하네요. 그건 말이 안됩니다. 형편이 안되면 동전도 들어가고 형편이 넉넉하면 큰 돈도 들어가는 것이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액수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지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뜻입니다. 지폐로만 하면 서로가 편리하지요. 헌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면 동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까? 어떤 분은 한끼 식사의 평균치를 주일마다 헌금을 하겠다 그렇게 정했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시다. 아니면 한끼 식사의 절반정도만 하겠다는 등 이런 기준이 있으면 동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동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를 잘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헌금하는 사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헌금할 때 지폐를 다리미로 뺏뺏하게 다려서 헌금을 했다고들 하거든요. 다리미로 다린 지폐하고 꼬깃꼬깃 접힌 지폐하고 어느 것이 가치가 더 있습니까? 똑같죠? 뭐가 차이가 나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것입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다리자? 다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생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다리미로 다리는 것보다 더 잘 하는 일입니다. 지폐만으로 헌금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헌금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헌금을 하게 합니까 아니면 부모의 헌금을 아이가 전달만 합니까? 주로 배달만 시키는 경우가 많죠. 주일 아침에 아빠나 엄마에게 헌금 받아 가지고 가서 선생님께 전하기만 하는 것은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빨리 고쳤으면 좋겠네요. 아이들 용돈을 일정하게 정해두고 그 용돈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아껴 두었다가 헌금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헌금하는 마음을 기르고 자기 것을 드린다는 마음을 훈련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하는 헌금은 반대로 하면 되지요. 바르게 하는 헌금은 액수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단서를 붙이는 게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도록'입니다. 열납하시도록 하는 것은 '기쁘게 받으시도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제물을 많이 갖다 드렸습니

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누가 저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느냐고 외치는 거죠. 제발 저 문을 좀 닫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고, 성의도 없고, 심지어 아까운데 이것 좀 안 하면 안되나 이런 생각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저 문 좀 닫아 걸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가장 잘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금이 되는 것이지요.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헌금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헌금하는 게 별로 기쁘지는 않고 또 헌금하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면 특히 십일조 같은 것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십일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이로운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 갔다 바치고 어떻게 살아요? 함께 근무하던 어떤 분이 그래요. 연말 정산 자료를 힐끗 보더니 아이구 선생님 헌금을 이렇게 하고 뭘 먹고 살아요 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당신 신랑 술값보다는 적으니까 괜찮아. 당신 신랑이 술집에 그렇게 갔다 주고도 어떻게 살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십일조 이거 아까워서...”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내가 안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가능하다면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왜요? 아까운데 억지로 하면 내게도 좋지 못하고 하나님도 기분이 안 좋으실테니까요. 그러면 헌금을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만한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먼저 배우시는 게 순서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거든 그때에 헌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테니까 헌금을 드리자?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건 좀 고집시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신앙적으로 어릴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아빠한테 선물을 하나 했더니 아빠가 기분이 좋다고 그 다음에 더 큰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기쁘게 받아야지요. 그런데 눈치 빠르고 꽤 많은 아이가 그걸 눈치를 찻습니다. 야 우리 아빠한테는 작은 선물 하나 드리면 더 큰 것이 온다 그걸 알고 선물을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버리면요? 하나님도 그런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고 우리 속을 훤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헌금을 해야 합니다.

헌금은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남이 얼마를 하니깐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걸 좀 위험합니다. 항상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헌금하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가 더러 있죠. 어떤 부흥회나 특별한 집회에서 특별한 목사님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감동이 되어 있는데 자! 헌금을 얼마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걱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부부가 상의해서 하면 헌금 액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지금 약간 흥분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작정을 해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흥분도 좀 되었고 감격도 되고 해서 무리인데 할까말까 하다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과감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해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작정을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자기 부인이 믿음의 더 좋아가지고 더 크게 해 놓았네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까 해야죠? 그렇게라도 해서 무조건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앞뒤를 제어 볼 것 없이 과감하게 결정을 하도록 인도한 분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헌금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헌금은 절대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맞추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령이 말하는 부부는 혼자서 아닙니다. 헌금생활에 있어서도 남편이나 부인이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반드시 남편이나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끔 부인은 신앙이 좋고 남편은 초보인데 부인이 남편 몰래 십일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드리고 싶죠?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남편 몰래 십일조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로 십일조를 할 수 있도록 신앙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도록, 내가 만약에 이 남편에게 종노릇을 해서라도 남편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종노릇이라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남편 몰래 헌금부터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일단 부부가 되었으면 서로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이 더 좋아서 내가 끌고 가야 한다? 아니요.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데려가야 할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수준이 될만큼 신앙으로 이끌고 가야 합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봉급이 적을 때와 봉급이 많을 때 어느 쪽이 십일조를 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많을 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을 주시면 안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소득이 많아지면 십일조하기가 어려워지나요?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봉급이 많아지면 십일조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못 먹고 살 때는 십일조를 잘 하더니 복을 많이 줘서 돈이 많아지고 풍성하게 되니까 십일조 하기가 어려워진다? 아니 소득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비율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일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봉급이 적을 때야 10분의 1을 떼어도 액수가 얼마 안되는데 봉급이 많을 때 10분의 1을 떼니까 액수가 많죠. 우리 눈이 액수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왕 액수를 불러면 거꾸로 보면 좋지요. 봉급이 작을 때는 십일조를 떼고 나니까 요것 밖에 안 남았네. 봉급이 많을 때는 십일조를 떼고 나도 이만큼 많이 남았네!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되나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는 소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정 어려워서 안되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형편도 안되거든 짐비둘기나 산비둘기 둘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참 재미있어요. 요즘 소 한마리에 얼마정도 하지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백만원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염소 한 마리는요?

몇 십만원요.

그러면 몇 십분의 1로 떨어지지요. 그것도 안되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오면 돈이 안 드네요. 잡을 힘이 없어서 산다면 비둘기를 산다면 얼마할까요? 닭값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몇 백분의 일로 떨어지네요. 가격차는 이렇게 나는데도 제사의 효력이 동일합니다. 그럼 뭘 드리죠? 다 같은 제사인대요. 다 같은 번제인데 무얼 드릴까요?

소를 드려요... 형편 따라.

형편 따라 드린다는 분도 있고 소를 드린다는 분도 있는데 소를 드리는 분은 형편이 아주 좋은 분이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번제를 드려야 할 때에 마땅히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리는대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번제는 반드시 드리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마는 자신의 형편을 잘 고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보세요. 야구 선수라고 야구 방망이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도 합니다. 선교를 위해 떠나는 친구, 등록금이 없는 전도사, 교회 건축,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 신학 공부를 하는 동료가 있더라구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었어요. 엘리야가 그릇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양식을 날라다 준 까마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때는 써야 합니다. 이것은 평소의 현금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 행사나 자선을 베풀 때 가난한 사람이 기가 죽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육관에 피아노를 누가 기증했을까요? 알고 하지 마세요. 궁금하지만 본인이 무명으로 하겠다는 것을 알고 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좋지만 악착같이 살펴보고 이 경우, 저 경우를 다 따져서 누가 한 것인지 알아내야 직성이 풀린다구요? 정말 나쁜 버릇입니다. 남의 연애편지를 뜯어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현금을 많이 해라?’입니까? ‘하지 마라?’입니까? 해라도 아니고 하지 마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금액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드립시다. 아까운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배우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는 일에 노력하세요. 그런 다음에야 현금이 기뻐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뼈빠지게 벌어들인 돈으로 자식을 입히고 먹일 때 아까운 느낌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듣기에 가장 기쁜 소리는 자식의 목구멍에 젖넘어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현금 드리는 기쁨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너무 가난해서 주일학교 초등부 시절에 현금을 드리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자기 딸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답니다. 액수를 적고, 커서 반드시 갚겠다고 적어서 현금주머니에 넣었답니다. 장난쳤다고 선생님께 몹시 야단을 맞았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렸답니다. 현금할 형편이 못되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 때문이지요. 현금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십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다 아시기 바랍니다.